

능력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가?

박 동섭  
littleegan@gmail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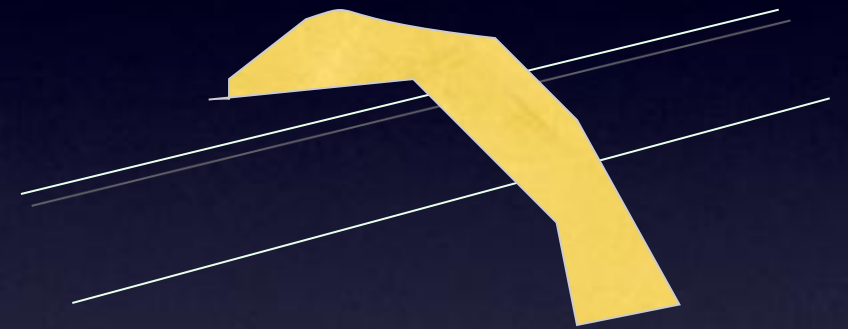
다리의 디자인 : (Winner, 1980) 가 소개하고 있는 사례

## 제2차대전 직전 뉴욕시의 Planner였던 Robert Mozes의 이야기

:그는 뉴욕에서 롱아일랜드에 이르는

공원(JohnesBeachPark)도로를 디자인하였다.  
인종차별주의자였던 Mozes는 흑인을 공원에  
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승용차는 다닐 수  
있지만 버스는 다닐 수 없는 공원도로를 횡단하는  
다리를 디자인하였다.

다리높이는 9feet 버스의 차 높이는 12feet  
즉 이 다리에 의해서 승용차를 소유하지 못한  
흑인은 롱아일랜드 공원에 들어갈 수 없었다.



# Access의 물리적 제한

[가난한 흑인]과 그러한 사회적 그룹의 Identity :  
여기서는 세계가 즉 흑인이 beach로부터  
배제되는 세계가 다름아닌 사람과 object,  
사회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의 Hybrid로서  
구성되는 process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.  
즉 다리, 자동차, 버스와 같은 인공물의 조합  
속에서 “흑인의 배제”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 
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.

# Access의 물리적 제한

이러한 의미에서 사람은 개인적인 것에도  
사회적인 것에도, 기술적, 물리적인 것  
어느 것에도 환원될 수 없는 사회-  
기술적인 존재인 것이다.

# Access의 물리적 제한

그것은 어디까지나 [낮은 다리][자동차][버스]라고 하는 구체적인 object를 매개로 하면서 그러한 매개물의 배치관련 속에서 비로소 나타나는(Emergent) 것이다.

모든 것은 전체와의 관계를 통하여 그 안에 존재한다.

# Hybrid의 Design

-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역시[Mozes], [다리], [도로], [자가용차], [버스], [흑인]의 각각은 분리할 수 없다.
- 그러한 것들은 서로 독립한 존재로서 서로 영향을 주기 보다는 불가분의 통일체(시스템)로서 어떤 특정한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다.
- 흑인이 배제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과 object, 사회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이 함께 섞여 있는 **[Hybrid의 design]**으로서 나타나는(Emergent) 것이다.

# 배제된 흑인의 무능력은 흑인 안에 있는 것일까?

- 그럼 [beach에 갈 수 없는] 흑인들의 능력(무능력)은 그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일까?
- 아니, 그것은 다리, 승용차, 버스와 같은 인공물의 배치관계 속에서 비로소 나타나는(Emergent) 것이다.
-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무능력은 역시 그들 자신의 무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특정한 사회-기술적인 배치관계의 [효과]로서 정의하고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.



# 능력은 과연 개인에 내재하는 것인가?

- Goodwin(1995)은 Yes, No 그리고 And 이 세 가지 말 밖에 하지 못하는 실어증 환자가 그 장에서 협동적으로 만들어지는 맥락을 이용해서, 자신의 아내와 늘 병간호를 하는 전문 간호사와 전혀 문제 없이 의사소통을 하는 장면을 상세히 분석해서 그의 생활상의 [유능함=능력]이 아내와 간호사 사이에 사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는(socially distributed)것을 밝혔다.



# 능력은 과연 개인에 내재하는 것인가?

- 그의 이 [능력]은 결코 그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.
- 다름아닌 그것은 그가 뇌에 손상을 입고, 실어증에 되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에 걸쳐 획득된 것이다.

# 능력은 과연 개인에 내재하는 것인가?

- 또한 그의 언어능력의 향상에 동반해서 획득된 것도 아니다.
- 그는 rehabilitation center에 온 이래 13년간 계속 이 3 단어 밖에 말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다.

# 능력은 과연 개인에 내재하는 것인가?

- 그러면 그의 [능력]의 획득, 즉 [학습]은 어디서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?
- 많은 사람들은 그의 [학습]을 그의 비언어적 표현력의 향상에 관련 지을 것이다.
- 그러나 그의 비언어적 표현력을 의미 있는 표현으로서 가시화한 것은 다름 아닌 아내와 간호사이고,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 것이다.

# 능력은 과연 개인에 내재하는 것인가?

- 만약 그가 전혀 다른 대인 관계 속에 놓여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자신의 [유능함]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다.
- 그 밖에 그의 유능함을 아내와 간호사의 이해, 추론능력의 향상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.

# 능력은 과연 개인에 내재하는 것인가?

- 그러나 만약, 아내와 간호사에게 고유한 [그러한 추론능력]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, 그 능력이 향상된다고 하는 것은 그 환자 이외의 실어증환자뿐만 아니라 그 밖의 여러 장면에서의 추론능력이 향상되어야 하는 것이다.

# 능력은 과연 개인에 내재하는 것인가?

-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, 이 특정한 실어증환자와의 일종의 routine화 된 생활장면에서만 발휘되는 [유능함]일 것이다.
- 즉 그의 [능력]은 특정한 인간관계와 일종의 생활상의 과제가 없으면 발휘되지 않는 아주 영역고유(domain-specific), 관계 고유한 성질을 띠고 있다.

# 능력은 과연 개인에 내재하는 것인가?

- 그러한 능력을 무리하게 어느 쪽의 내부에 귀속시키기 보다는 그들의 사회적 관계 속에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이다.
- 혹은 그의 능력을 ‘사회적으로 구성’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.
- 여러분이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 ‘사회적 구성주의’도 이런 모습이었던가요?